

노동정책연구
2014. 제14권 제3호 pp.1~36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고용의 질 :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1983~2012)*

유홍준**
김기현***
오병돈****

이 연구는 지난 30년(1983~2012) 동안 연령집단별로 고용의 질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연령계층화 과정을 진단해보았다. 먼저 연령집단별 고용의 질을 고용기회(고용률), 고용안정(임시·일용직 비율), 능력개발(관리·전문직 비율), 소득보장성(중위임금 50% 이하 비율), 노동조건(주당 50시간 이상 노동 비율)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 다차원척도법(MDS)을 이용하여 연령집단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층(15~24세)과 노년층(55~64세)의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줄어들었으며 후자의 경우 소득보장성이 악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두 연령집단 간의 동질성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두 연령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간의 이질성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의 질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연령 통합적 구조에서 보다 연령 분절적인 계층화 구조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연령구조와 취업구조 간의 구조적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고용의 질, 관참은 일자리, 연령계층화, 구조적 지체, 다차원척도법

논문접수일: 2014년 4월 2일, 심사의뢰일: 2014년 6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12일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2S1A3A2033331).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과 관련하여 귀중한 자문을 베풀어 주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광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yhjcti@skku.edu)

*** (교신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kihuns@nypi.re.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byeongdonoh@gmail.com)

I. 머리말 : 문제 제기

한국 사회의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악화된 이후 경기회복 중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현상이다. ILO(2013)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제회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개발도상국조차도 더 이상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청년 고용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어 청년들의 정치적 저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노년층의 고용문제는 연령차별주의(ageism)와 맞물려 있으며 전통적으로 노년층은 고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연령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불안정한 취업상태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되고 있어 노년층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용 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여성과 더불어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 청년층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 지원 대상의 확대(29세 이하 → 34세 이하)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 창업·창직 활성화, 해외취업 지원 등을 청년 고용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매우 장기적인 현상이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노년층과 관련하여 정부는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제도 등을 통한 정년연장(60세 정년제)과 시간선택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고용 여건의 개선 여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연령집단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주로 노년층에 관한 것이었다(Estes, Biggs & Phillipson, 2003). 노인학(gerontology) 분야에서 연령계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이 발전되어 왔으며, 노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 심리적 위축, 노인 차별주의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 구체화되었다(Ferraro, 201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들의 삶(특히 노년층)의 변화 간의 괴리로 설명하는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 개념이다(Moen & Orrange, 2002; Han & Moen, 1999; Riley, Kahn, Foner & Mack, 1994). 구조적 지체의 한 가지 예로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중년층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구조가 여전히 유지되어 두 사회구조 간의 괴리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노년층의 불이익이 확대되는 현상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고용의 질(quality of work)을 연령계층화 현상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비롯하여 전 연령대에 걸쳐 고용의 질을 조명해 볼 것이다¹⁾. 동시에 각 연령집단의 특성이 유사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차이와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고용의 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령 분절적 구조(age differentiated structure) 혹은 연령 통합적 구조(age integrated structure)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동(work)이 교육(education) 및 여가(leisure)와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집단 간 차별에 있어서 실업률이나 고용률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양적 측면보다는 고용안정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한 까닭에 고용의 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고용문제가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는 두 세대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 연령계층화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노년층은 55~64세, 중년층은 30~54세, 청년층은 15~29세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55세부터 노년층으로, 통상 청소년으로 정의되는 15~19세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5세 단위의 해당 연령 코호트를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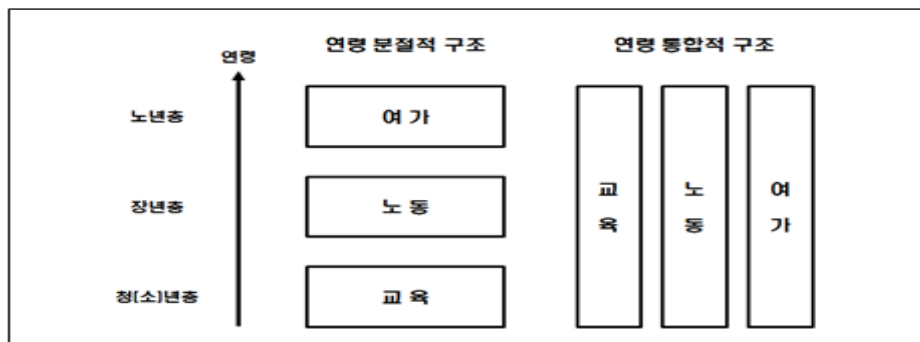
이 연구는 고용지표와 관련된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할 수 있는 1983년부터 2012년까지 5세 단위의 연령집단별로 고용률, 임시·일용직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 장시간 노동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용의 질 맥락에서 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시계열 분석에 도입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최근 30년 동안 진행된 연령집단별 고용의 질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 문제 제기

1.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

연령계층화는 개인의 생애과정이라는 개인적 시간(personal time)과 사회적 변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시간(historical time)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방하남·김기현, 2001: 4). Riley, Kahn, Foner & Mack(1994)는 연령계층화를 개인들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과 사회적 고령화(aging), 그리고 연령 코호트(age cohort) 혹은 세대(generation)의 변화가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연령구조(age structure)의 유형



자료: Riley & Riley(1994: 111).

Riley & Riley(1994, 2000)는 연령구조와 관련하여 연령 통합적 구조와 연령 분절적 구조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정도(연령 유연성, age flexibility)와 다양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도(연령 이질성, age heterogeneity)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연령 유연성과 관련하여 청년층이든 중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연령 장벽 없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고용 측면에서 연령 통합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젊었을 때는 일정한 연령이 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다시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노인이 되어서 은퇴를 하는 생활방식은 연령 분절적 사회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 이질성은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서적 문제로서 하나의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접촉하는가와 관련된다. 한 사회의 연령 유연성은 연령이 그 사회의 특정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데 비해서, 연령 이질성과 관련된 연령층 간의 접촉은 여러 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연령 이질성은 그 정도에 따라 흔히 세대 차이로 불리는 연령집단 간 격차가 큰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연령 유연성과 연령 이질성은 이론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연령 간에 기회에 있어서 경계가 없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들 간의 접촉이 잦고 유대가 강화될 것이며,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들 간에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연령에 따른 구별이나 차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차별주의는 연령 유연성이 낮고 연령 이질성이 높을 때 나타난다(Caspi, 1984). 지금까지 연령차별주의에 관한 논의는 주로 노년층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다른 연령층도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차별주의를 노년층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이유는 없어 보인다.

Riley, Kahn, Foner & Mack(1994)은 구조적 지체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

데 구조적 지체는 전체 사회의 여러 구조들 혹은 제도들 간에 괴리 현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연령구조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고령화와는 달리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구조적 지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Riley, Kahn, Foner & Mack(1994)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할 동기는 물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괴리 현상을 구조적 지체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연령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데 노동 시장에서 장년층에 유리한 특성만이 계속 강조된다면 이에 따라 구조적인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이나 비공식교육은 확대되지 않고 교육정책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식교육과 학교교육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역시 구조적인 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 역시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만약 공부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고 일을 위한 기회나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청년층에서도 구조적인 지체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구조적 지체는 변화하는 개인의 삶과 변화하는 사회구조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으며 연령 분절적 구조를 연령 통합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지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Binstock et al.(2011)은 구조적 지체가 개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연령 규범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하여 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생활양식에 있어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정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을 하는 노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더 하고 싶지만 빨리 은퇴를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구조적 지체 현상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없애고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적으로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

이 연구는 연령계층화 문제, 나아가 구조적 지체 현상을 고용의 질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고용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Institute)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소개하고 있는 Anker et al.(2003)은 ILO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질을 다루었는데, 이는 비교적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논의(Lozano, 2005)와는 달리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가까지 모두 포괄하여 보편적인 수준에서 고용의 질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ker et al.(2003)은 고용기회, 부당노동, 적절한 수입, 노동시간, 고용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 평등, 작업 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적 맥락 등 11가지 차원을 구분하고 각 차원별로 29가지 측정지표를 제시하여 국가 수준에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고용기회 지표로는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고용률, 비농업부문 임금노동비율 등이 세부 측정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보다 광범위한 고용의 질 지표는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이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의 지표(Decent Work Index : DWI)를 보장(security)이라는 맥락에서 7가지 영역(labor market, employment, job, work, skills reproduction, income, voice representation)별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세부 지표들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한 거시지표와 기업 수준의 중간지표, 개인 수준의 미시지표 등을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 연령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고용의 질 전반이나 특정 대상의 고용의 질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비교적 초기 연구들은 최옥금(2006)이나 방하남 외(2006)를 들 수 있다. 최옥금(2006)은 ILO에서 제시한 거시적 지표를 토대로 분석 가능한 3가지 지표(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social protection)를 선별해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활용해 괜찮은 일자리의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정의(취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중위임금 2/3 이상 적용)에 의해 가장 최근 자료(KLIPS 7차년도)를 분석했을 때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2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외(2006)는 고용의 질에 관하여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국가 수준의 거시지표와 기업 수준의 중간지표, 개인 수준의 미시지표 등을 모두 측정하여 고용의 질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국가 수준의 거시지표는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에서 제시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ILO의 GSES(Global Socio-Economic Security) DB²⁾를 이용해 2004년을 기준으로 29개 국가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고용의 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으며 거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최 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임금노동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으로 측정된 고용기회 영역은 29개 비교대상 국가 중 25위였으며 충고용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노동자의 비중 등으로 측정된 고용안정 영역은 29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용의 질이나 괜찮은 일자리를 다룬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고용의 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거나(노용환 · 신중각, 2007)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의 질 특성을 분석하였고(이성균, 2009), 노인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 분석하거나(최희경, 2009) 고용의 질과 인적자원관리의 관련성(김진희, 2011) 혹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김보람 · 문은하 · 이승윤, 2012)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나 변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없으나 고용의 질이나 괜찮은 일자리 규모에 있어서 연령집단별 결과를 제시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최옥금(2006)은 10세 단위로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괜찮은 일자리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엄격한 세 번째 정의에 따른 연령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29세 미만은 20.1%, 30대는 33.0%, 40대는 28.3%, 50대는 15.9%, 60세 이상은 2.8%로 노년층의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방하남 외(2006)에서도 미시수준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고용의 질 점수는 30세 미만이 49.9

2) 해당 DB 홈페이지(<http://www.ilo.org/dyn/sesame/ifpses.home>).

점, 30대가 55.6점, 40대가 49.6점, 50대 이상이 44.8점으로 전반적으로 연령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30세 미만과 50대 이상의 고용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하남 외(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의 질 지표를 토대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이용해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를 지난 30년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고용의 질 측면에서 연령구조가 비교적 동질적으로 변화했다면 한국 사회가 연령 분절적 구조에서 연령 통합적인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경험적 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노년층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다른 연령층과의 이질성이 증가했다면 연령 분절적 구조로 연령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분절적인 연령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면 연령구조와 취업구조 사이의 구조적 지체에 대해서도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년층의 경우에는 어떤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와 변수,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며 이어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겠다.

Ⅲ. 분석자료와 변인

1. 분석 자료 및 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자료는 1983년에서 2012년까지 30년간에 걸쳐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소득이나 근속연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추가 자료들은 1983년에서 1991년까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원자료, 1992년에서 2007년까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이들 조사들은 자료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는데 우

선 임금노동자만이 조사대상이며 가장 오래된 직종별임금실태조사가 10인 이상의 상용노동자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석 대상을 상용노동자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들은 모두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방하남 외(2006)에서 제시한 고용의 질 지표 중에서 원자료에서 제공 가능한 지표를 산출한 것으로 ① 고용기회와 관련해서 ‘고용률’을, ②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임시·일용직 비율’을, ③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총고용 중 관리·전문직 비율’을, ④ 소득보장성과 관련해서 ‘중위임금 50% 이하의 고용비율’을, ⑤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 비율(주당 50시간 이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제약과 관련 임금노동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체 취업자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취업자 전체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고용의 질 지표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용기회의 경우 임금노동자로 제한하기보다는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고용안정의 경우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비율로 임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비임금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지표별로 살펴보면, 고용기회와 관련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는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등인데 이 연구에서는 고용률을 측정지표로 선택하였다. 고용률을 가장 적절한 지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참여율이 포괄적으로 고용기회를 대변하는 지표로 볼 수도 있으나 실업률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업률은 취업준비생 등이 제외되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임시·일용직 비율을 활용하였는데 고용안정 지표로 제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시간제 노동 비율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분석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80년대부터 측정이 가능한 지표는 상용·임시·일용직 여부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임시·

일용직 비율을 선택하였다. 시간제 노동 비율의 경우 총노동시간을 활용해 분석 가능하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상용 대비 임시·일용직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일용직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능력개발에 대한 측정지표는 총고용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 공공 교육훈련 지출비, 교육훈련 참가율, 고학력자 비율, 교육연수의 중위값, 문맹률 등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총고용 중 관리·전문직 비율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능력개발의 결과 지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투입이나 과정지표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선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활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학력자 비율 등은 핵심지표라기보다는 보조지표(Bonnet, Figueiredo & Standing, 2003)로 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리직을 포함한 이유는 1980년대 분석 자료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을 세분화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성에 대한 측정지표는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지니계수 등으로 분석 자료에서 측정 가능한 상대빈곤율, 곧 중위임금 50% 이하의 고용 비율로 소득보장성을 측정하였다.³⁾ 분석 자료상 전체 취업자의 소득이 아니라 임금노동자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된 분석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위임금을 활용하였으며, 시계열 유지를 위해 10인 이상 상용 노동자로 제한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상황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줄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조건 중 유일하게 측정이 가능한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장시

3) ILO의 팬찮은 일자리(decent work) 지표에서 소득에 관한 영역은 적절한 수입(adequate earning)으로, 이에 대한 측정으로는 저임금고용 비율과 주요 직업의 평균 수입을 제시하고 있다. 저임금고용 비율은 중위임금 1/2 이상이나 2/3 이상으로 측정하고 있다.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는 보다 세부적으로 소득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보장성(income security)에 대해서 산출지표로 빈곤율(중위 1/2), 구매력 기준 개인당 GDP,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기대수명,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비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방하남 외(2006)는 이 영역을 소득불평등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최옥금(2006), 이성균(2009) 등에서 중위임금 1/2을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지표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중위임금 1/2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보장성이라는 Bonnet, Figueiredo & Standing(2003)의 정의를 활용하였다.

간 노동 비율(주당 50시간 이상)로 노동조건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령집단은 5세 단위로 구분하였는데 15세에서 64세까지 10개 인구집단(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을 구성하였다. 각 연도별로 연령집단에 따른 지표값들은 <부표 1~5>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상이한 연령집단의 고용의 질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을 활용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주어진 자료를 통계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분석방법으로 연구자의 창의적인 접근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시각화가 가능하다(박광배, 2000 : 1). 정신물리학과 심리측정이론에서 비롯된 다차원척도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해왔는데, 특히 그동안 마케팅 분야 등에서 주로 시계열적 접근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시계열적 접근은 대부분 특정한 사건(광고나 정책 등) 전후(before and after)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연구와 같이 연쇄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분석에는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 중 하나인 개인차척도법을 시계열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다차원척도법인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다차원 도표를 도출할 경우 각 차원의 의미를 모든 연도에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다차원척도법으로 획득한 차원을 얼마든지 회전, 혹은 뒤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도별 다차원 도표를 회전하거나 뒤집어서 일관된 차원 해석이 가능한 도면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자료에서 산출된 30개의 도표를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면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전이나 뒤집기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도표의 좌표값을 다른 도표의 좌표값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도표상에서 변수들의 상대적 배열이 연도별로 유사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연도, 즉 시간을 하나의 공간 차원에 통합하는 방법이다. 다차원척도법에서는 공간 개념은 있지만 시간개념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추가적인 공간 차원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와 같이 10개의 대상 집단에 대한 30년간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 먼저 300×300 의 매우 큰 유클리드 거리 행렬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하여 시간 차원을 찾아낸 뒤 그것을 기준으로 도표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규모의 유클리드 거리 행렬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표상에서 시간 차원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결과의 해석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개인차척도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차척도법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INDSCAL(Individual Differences multidimensional sCALing)은 본래 심리학에서 심상자극들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에 대한 판단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박광배, 2000 : 83). 예를 들어, 특정한 세 가지 심상자극에 대하여 남성 판단자 A와 여성 판단자 B가 각 심상자극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여 각 심상자극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이에 대해 ALSICAL 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통 두 판단자가 평가한 결과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게 된다. 즉 남성 판단자 A와 여성 판단자 B 사이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하나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시된다. INDSCAL 기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모든 판단자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자극공간(공통자극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판단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제시한다. 나아가 공통자극공간의 좌표값에 각 판단자의 가중치를 곱하면 각 판단자에 부합하는 자극공간(개별자극공간)을 도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척도법의 개인(individual) 혹은 판단자 개념을 연도(시간)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즉 30명의 판단자로부터 획득한 30개의 매트릭스를 INDSCAL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0개년도에서 도출한 30개의 매트릭스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통자극공간

은 30년 동안의 자료를 포괄하는 통시적인 자극공간으로, 개인자극공간은 연도별 자극공간으로 새롭게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INDSCAL 기법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가중 유클리드 모형(weighted Euclidian model)으로서 다음과 같다(박광배, 2000 : 85).

$$\delta_{ijs} \cong d_{ijs} = \sqrt{\sum_k W_{sk}^2 (X_{ik} - X_{jk})^2}$$

δ_{ijs} 은 판단자 s 가 제공한 자극 i 와 자극 j 사이의 (비)유사성 자료이고, d_{ijs} 은 판단자 s 의 개별 다차원 공간에서 자극 i 와 자극 j 사이의 거리이다. W_{sk}^2 는 k 번째 판단자 s 의 가중치이다. 끝으로 X_{ik} 와 X_{jk} 는 공통공간에서 자극들의 좌표값이다. 즉 위의 INDSCAL 모형은 각 차원에 가중치(W^2)가 주어진 이후에 도출된 유클리드 거리 모형이며, d_{ijs} 는 각 판단자(s)의 도표에서 두 점(i, j)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한다. 이 INDSCAL 모형은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시계열 분석에 적용하면 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표시될 수 있다.

$$\delta_{ijt} \cong d_{ijt} = \sqrt{\sum_k W_{sk}^2 (X_{ik} - X_{jk})^2}$$

이 모형에서 연도(시간)를 의미하는 t 는 기존 모형에서의 판단자 s 를 대신하며, 기존 모형에서 자극을 의미했던 i 와 j 는 새로운 모형에서 각각 연령집단 i 와 j 를 나타낸다.⁴⁾

기본적인 분석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각 개별 연도별로 수집된 고용률, 임시·일용직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 장시간 노동 비율 등 다섯 가지 속성 요인들을 표준화(Z-score로 전환)한 후 유클리드 거리 제곱의 합 방법(squared euclidian distance)으로 값을 전환하여 유클리드 행렬(다차원척도법 분석을 위한 원자료)을 산출한다. 이어서 30년간의 개별 연도 값들을 개별 사례들로 삼아 다수행렬에 대한 동시분해방식(CANDECOMP : CANoinical DECOMPosition)을 이용해 30년간의 통시적인 공간인 공통자극공간과 가중치공간을 도출해낸다. 그 다음 공통자극공간의 좌표에 각 연도별 가

4) ALSICAL과 INDSCAL을 포함하여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은 박광배(200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치 값을 부여하여 각 연도별 자극공간을 도출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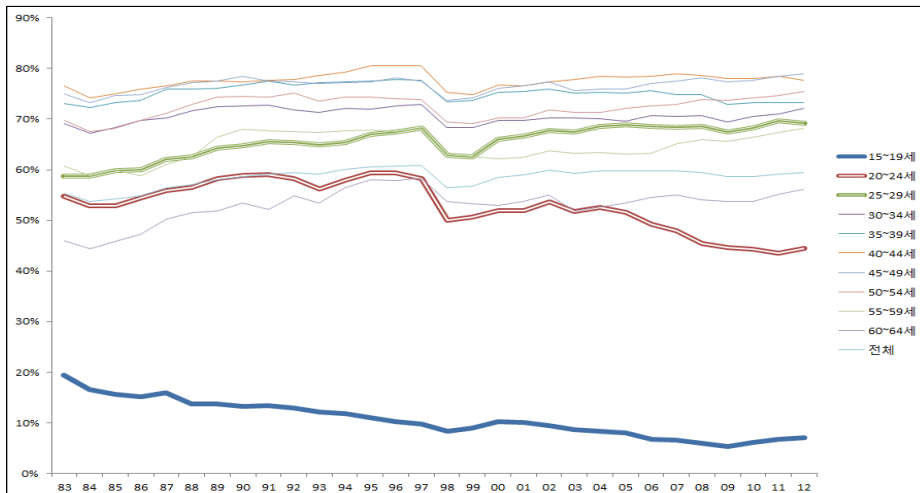
IV. 분석 결과

1. 고용의 질 변화 추이

다차원적도법을 활용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절에서는 고용기회, 고용안정, 능력개발, 소득보장성, 노동조건 등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용의 질 변화 추이를 5세 단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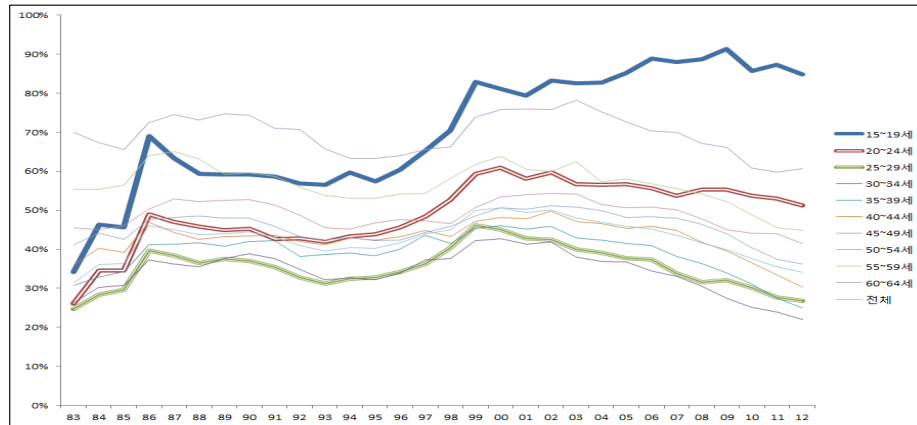
먼저 고용기회와 관련하여 고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령집단에서 고용률이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4세는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가 아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기회 측면에서 청년층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연령집단별 고용률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5~19세는 1983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여 1983년 19.4%였던 고용률이 2012년 7.0%로 급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 연령집단 중 취업자의 다수를 점하는 18~19세의 인구규모는 저출산 경향을 반영하여 1983년 172만 명에서 2013년 14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14~17세의 인구규모 역시 같은 기간 349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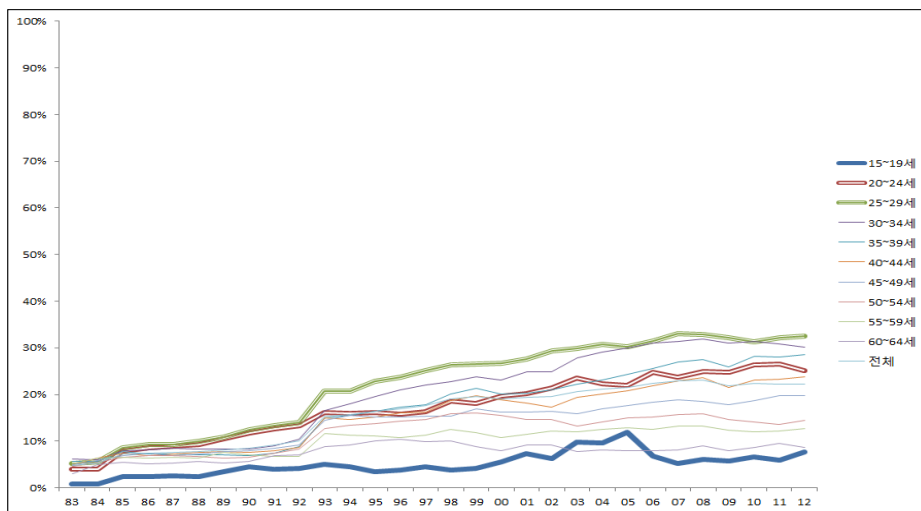
20~24세는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당시 8%가량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2005년까지 5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령집단은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으며 취업자 수는 1983년 183만 명에서 2013년 124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임시·일용직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1985~86년과 1998~99년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경기 호황기인 데 반해 후자는 IMF 위기로 경제가 가장 좋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1997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황선웅(2007)은 임시·일용직 구조 변화 시점을 1990년대 후반이 아닌 1980년대 중반으로 추정하였으며 임시·일용직 비율은 경기수축기나 경제위기

기간이 아닌 경제확장기에도 더 높은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 생산량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이전 시기보다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이 (기업 차원의 인사관리전략의 변화나 하도급 분업의 확대 등으로) 상용직에 대한 보호와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완충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이 기간 중 임시·일용직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층은 15~19세와 20~24세의 청년층이다. 결국 청년층의 고용안정성은 경제 확장기나 경제 침체기 모든 경우에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0~64세와 55~59세의 노년층은 1980년대 초반 가장 높은 임시·일용직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2012년 현재 60~64세는 15~19세와 더불어 다른 연령집단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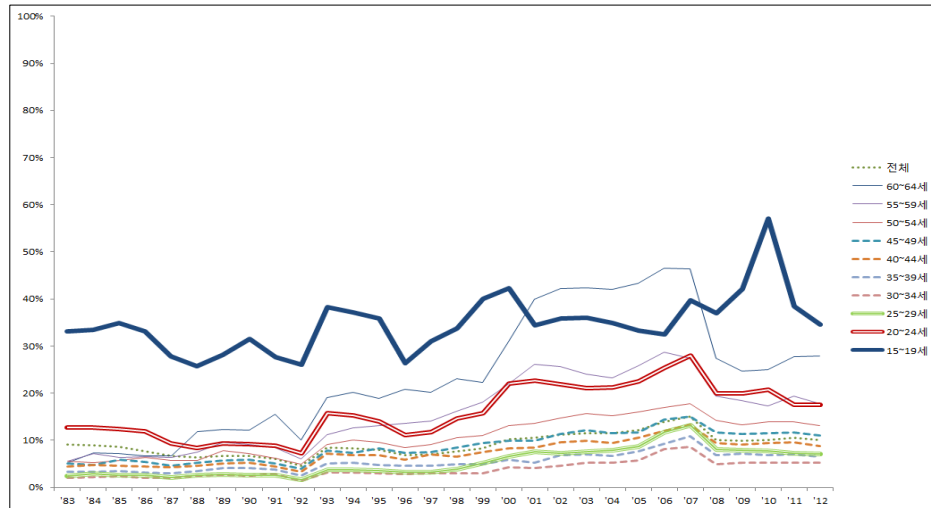
다음으로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관리·전문직 비율은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93년 모든 연령집단에서 관리·전문직 비율이 5~6% 정도 증가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분류를 비롯해 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분류코드의 입력방식이 바뀌어 발생한 것으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 연령집단별 관리·전문직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연령집단별 중위임금 이하 비율 변화 추이(1983~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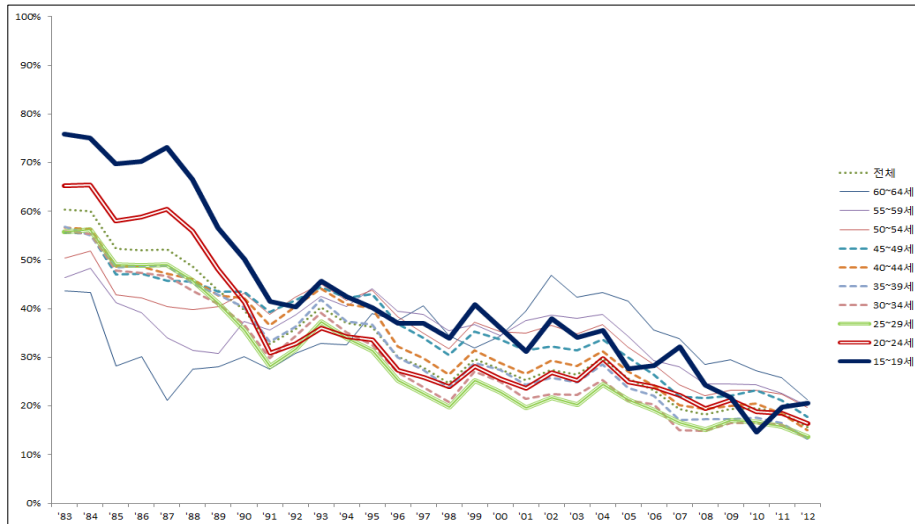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관리·전문직 비율의 증가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60~64세(8.6%)와 15~19세(7.7%)의 관리·전문직 비율은 2012년 현재 10% 미만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인 수준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성과 관련하여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소득보장성 수준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64세의 상대 빈곤율은 1983년 당시 5.2%였으나 2012년 27.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에서 17.7%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5~19세는 상대 빈곤율이 1983년에도 33.2%로 가장 높았고 2012년에도 34.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24세 역시 1983년 당시 12.8%로 2~5% 수준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상대 빈곤율을 보여주었으며 2012년 17.5%로 네 번째로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결과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상대 빈곤율이 20% 이상에 달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 시계열 분석을 위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6) 연령집단별 장시간 노동 비율 변화 추이(1983~2012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주당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연령집단 간의 격차 역시 크게 감소하여 수렴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19세는 1983년 장시간 노동 비율이 75.8%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2012년 20.5%로 크게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높았던 20~24세 역시 같은 기간 65.3%에서 16.4%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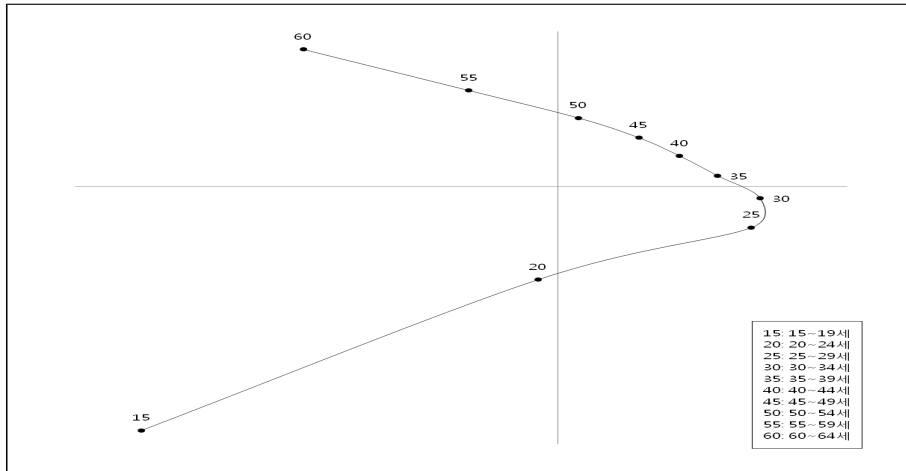
노년층은 이 같은 수렴 현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30년 동안 장시간 노동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집단으로 탈바꿈하였다. 1983년 55~59세 46.4%, 60~64세 43.7%로 장시간 노동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으나 2012년 각각 20.1%와 21.2%로 15~19세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역시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과 마찬가지로 1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났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명확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차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INDSCAL을 통해 30년간 매년 자료 결과들의 개별 유사성 행렬들에 대해 공간 차원에 대한 통시적인 도면(공통자극공간)과 개별 연도별로 각 차원에 대해 가지는 가중치에 대한 도면(가중치공간)을 도출하여 연령집단 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 공통자극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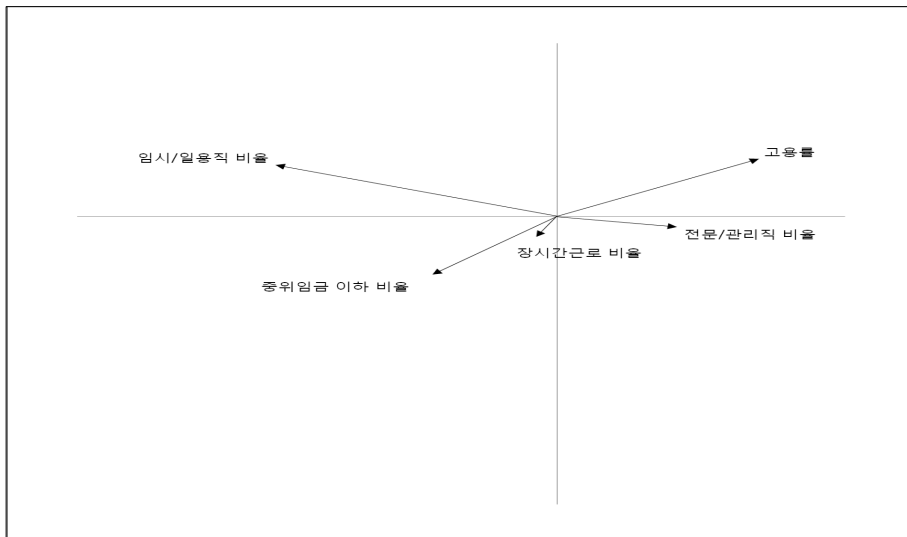
<표 1> 공통자극공간의 좌표값과 합치도

연령집단	좌표값		차원	합치도	
	X	Y		S-stress	Improvement
15~19세	-2.158	-2.370	0	0.152	
20~24세	-0.101	-0.906	1	0.152	
25~29세	1.004	-0.402	2	0.146	0.006
30~34세	1.048	-0.114	3	0.144	0.002
35~39세	0.828	0.102	4	0.142	0.002
40~44세	0.633	0.295	5	0.141	0.001
45~49세	0.420	0.472	6	0.140	0.001
50~54세	0.106	0.664			
55~59세	-0.461	0.930			
60~64세	-1.319	1.329			

[그림 7]은 공통자극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개별 연도를 사례(case)로 30년간 개별 자료들의 연령집단별 공간 위치를 포괄하여 각 연령집단이 좌표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여준다. 좌측 상단의 극단에는 60~64세가 위치해 있으며 같은 좌표공간에 55~59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좌측 하단의 극단에는 15~19세가 위치해 있으며 같은 좌표공간에 비교적 큰 거리 차이로 20~24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공간 좌표에 대한 해석은 공간 좌표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 다섯 가지 고용의 질과 관련된 성분 값의 위치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8]은 각 구성 요소별로 공간좌표에 대한 방향(vector)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공간상 좌표에 대한 벡터 산출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고용의 질에 대한 다섯 가지 구성 성분의 평정치이며 독립변수는 INDSCAL에서 사용된 각 공간 좌표값들이 된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준화된 회귀 계수값은 각 차원의 좌표값의 기울기로 각 구성 성분별로 좌표 공간상의 방향(vector)을 계산할 때 활용되며 좌표에 제시한 방향벡터의 길이는 중다회귀분석에서 산출된 결정계수(R^2)과 비례하여 해당 공간좌표에서 미치는 영향을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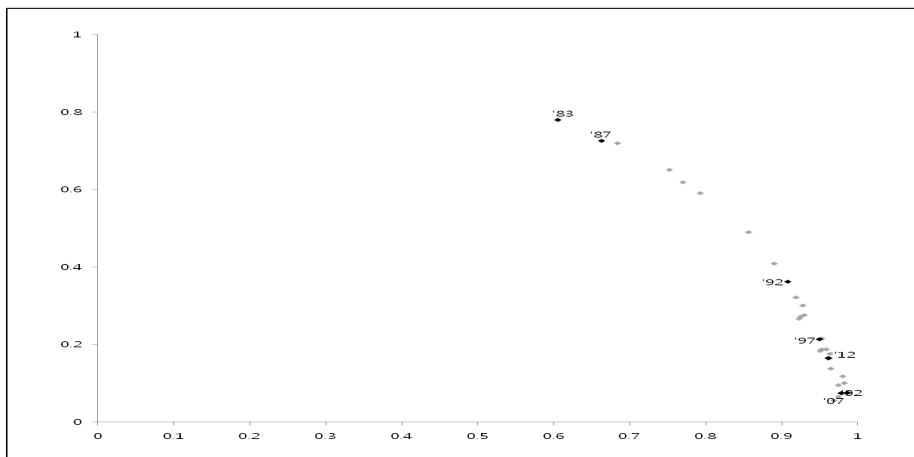
[그림 8] 변수별 좌표상 방향



[그림 8]을 통해 각 공간좌표의 특성을 해석해 보면, 좌측 상단은 임시·일용직 비율의 방향과 일치하며 가장 길게 표현되어 있어 설명력이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좌측 하단은 중위임금 이하 비율과 장시간 노동 비율의 방향과 일치하며 해당 공간 좌표에 대한 설명력은 중위임금 이하 비율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편인 우측 상단은 고용률의 방향과 일치하며 해당 좌표에서의 설명력이 임시·일용직 비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은 전문·관리직 비율의 방향과 일치하며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공통자극공간에서 연령집단별로 좌표상에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좌측은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데 좌측 상단은 고용불안정을, 좌측 하단은 소득보장성을 표시하고 있다. 반대로 우측은 고용의 질이 좋은 것을 표시하는데 우측 상단은 고용기회를, 우측 하단은 능력개발을 나타낸다. [그림 8]을 통해 [그림 7]의 연령집단별 공통자극 공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년층은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어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대변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어 소득보장성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중년층(35~55세)은 높은 고용기회를 대변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계에 위치한 25~34세는 능력개발을 대변하는 공간좌표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가중치 공간



〈표 2〉 가중치 공간의 좌표값과 각 매트릭스별 합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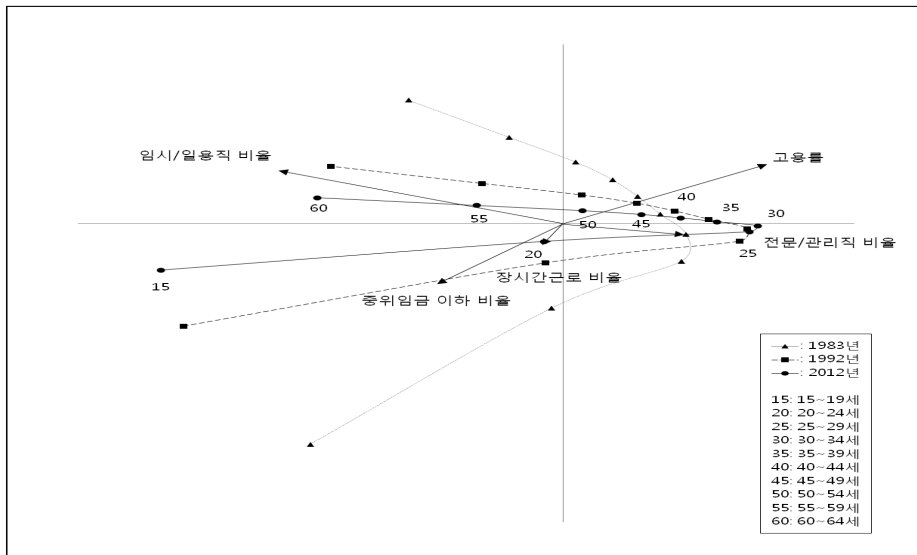
	좌표값		Stress	RSQ
	X	Y		
1983	0.605	0.780	0.126	0.934
1984	0.752	0.650	0.105	0.957
1985	0.684	0.720	0.122	0.944
1986	0.793	0.591	0.125	0.946
1987	0.663	0.726	0.145	0.919
1988	0.770	0.618	0.111	0.951
1989	0.857	0.490	0.102	0.959
1990	0.890	0.409	0.083	0.973
1991	0.919	0.322	0.088	0.974
1992	0.908	0.362	0.099	0.965
1993	0.928	0.301	0.113	0.954
1994	0.930	0.276	0.123	0.943
1995	0.925	0.272	0.136	0.933
1996	0.953	0.216	0.129	0.943
1997	0.950	0.214	0.127	0.943
1998	0.964	0.177	0.138	0.932
1999	0.959	0.188	0.128	0.942
2000	0.981	0.118	0.124	0.950
2001	0.979	0.076	0.133	0.949
2002	0.979	0.075	0.130	0.947
2003	0.969	0.056	0.154	0.931
2004	0.975	0.065	0.144	0.939
2005	0.974	0.095	0.123	0.958
2006	0.983	0.101	0.127	0.946
2007	0.987	0.076	0.135	0.940
2008	0.964	0.138	0.121	0.952
2009	0.952	0.188	0.114	0.956
2010	0.923	0.266	0.109	0.960
2011	0.951	0.183	0.114	0.955
2012	0.962	0.165	0.100	0.967
평 균	-	-	0.122	0.949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통시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개별자극공간, 곧 개별적인 연도별로 좌표상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통자극공간에 대해서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각 연도별 공간좌표가 제시될 수 있다. [그림 9]는 X축과 Y축에 대한 각 연도별 가중치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각 연도별로 좌표상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연령집단의 공간좌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고용의 질의 개선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 비율이나 중위임금 50% 이하의 비율,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낮은 부(-)의 관계를, 고용률과 관리·전문직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높은 정(+)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정(+)의 관계를 보이는 속성요인들의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이동은 고용의 질에 있어서 악화를 의미하게 된다.

30년간의 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30년 개별연도별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그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여기에서는 10년 주기로 1983년과 1997년, 그리고 2012년의 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10] 개인자극공간(1983, 1997, 2012년)



[그림 10]을 좌우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 극단점인 15~19세와 30~34세는 1983년보다 2012년에 더 벌어져 있다. 특히 다른 연령집단이 점차적으로 공간좌표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 비해서 15~19세와 60~64세는 더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동한 데 비해서 다른 연령집단은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상하관계를 살펴보면, 상하(↓) 간격은 매우 급격하게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사회적 거리가 매우 좁혀졌다는 것이다. 두 집단의 동질성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는 무관한 것이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대로이다. 다만, 두 집단이 한쪽은 고용불안정을, 다른 한쪽은 낮은 소득을 대변하였으나 그러한 속성을 대변하는 정도가 서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는 것이다.

연령집단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노년층의 경우 55~59세는 좌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의 공간좌표 이동이 두드러져 소득보장성(중위임금 50% 이하)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용불안정(임시·일용직 비율)이 다소 증가한 상태에서 다른 연령집단과의 이질성은 그대로인 데 반해 20대 초반과의 동질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64세 역시 소득보장성(중위임금 50% 이하)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용불안정(임시·일용직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연령집단의 이질성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15~19세와의 동질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5~19세는 소득보장성(중위임금 50% 이하)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임시·일용직 비율)이 증가하여 노년층과의 동질성이 강화되었으며 노년층 이외에 다른 연령집단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4세의 경향도 10대 후반과 유사하게 고용불안정(임시·일용직 비율)이 증가하여 노년층과의 동질성이 강화되었으며 노년층 이외에 다른 연령집단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 토론과 연구함의

이 글에서는 연령구조와 취업구조의 관련성을 고용의 질이라는 맥락에서 지난 30년간(1983~2012)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차 다차원척도법(INDSICAL)으로 분석해본 결과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두 연령집단 간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두 집단과 다른 연령집단과의 이질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의 연령구조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연령 통합적 구조로 이행하고 있다기보다는 보다 연령 분절적 구조로 이행하고 있으며 연령계층화가 가속화되어 구조적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규모 면에서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 두 연령집단 모두 고용의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적 측면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게 있어서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고용불안정과 소득보장성이 악화되어 청년 및 노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방향이 고용률 등으로 대변되는 단순히 일자리 확대보다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에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층과 관련하여 55세를 전후로 다른 연령집단과의 이질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60~64세 연령집단의 경우 15~19세 연령집단과 매우 유사한 취약집단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50대 중반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이 연구 결과는 정년연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55세 이상의 연령집단과 15~19세 연령집단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직 진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여 정년연장이나 은퇴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유지 혹은 전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층 노

동자 중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중견인력이 많지 않으며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지원사업이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나 산업현장교수단,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층 혹은 청소년층(15~19세)은 고학력화로 인해 대부분이 학업 중에 있으며 저출산에 따라 인구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규모는 1980년 100만 명에서 2013년 2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책대상의 감소로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요도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의 질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 이상치(outlier)로 보일 만큼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정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대상이며, 이 정책대상에 대해서 단기적인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청년층과 관련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 일정 정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고학력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고학력화와 관련하여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학력화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의 경우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노동시장으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익률을 높여 대졸 노동시장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졸 노동시장의 부활 역시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대졸 노동시장의 포화 문제와 하향취업 등 불일치(mismatch)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청년층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정책 측면에서 취업준비생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층에게 가장 익숙한 취업준비는 대입준비 같이 시험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방식이며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입시경쟁의 병폐가 취업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에 청년취업 컨설팅 학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월 100만 원이 넘는 기숙학원이 모델로 도입되고 있다. 대학생 역시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 집단 역시 잠재적 취업준비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령집단별로 지난 30년간 고용의 질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얻는 데 기여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연령 통합적 구조가 연령 분절적 구조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섯 가지 지표만으로 고용의 질 여부를 진단하여 고용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는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상 집단인 청년과 노인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시기로 근본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연령계층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3). 「2013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2013년 6월 27일자 보도자료.
- 김보람·문은하·이승윤(2012). 「퍼지셋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의 질 분석: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정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29.
- 김진희(2011). 「고용의 질과 고물입 인적자원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16(3): 89~98.
- 노용환·신종각(2007).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한국사회 [고용의 질] 추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45~65.
- 박광배(2000). 『다차원척도법』. 교육과학사.
- 방하남·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방하남·이영면·김기현·김한준·이상호(2006).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

- 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균(2009). 「중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15 (2) : 181~216.
- 최옥금(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 (2) : 227~252.
- 최희경(2009).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적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 27~57.
- 황선웅(2007). 「한국사회 임시일용직 고용동학의 구조변화」. 『2007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p.119~152.
- Anker, R., Chernyshev, I., Egger, P., Mehran, F., and J. A. Ritter(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147~178.
- Bonnet, F., Figueiredo, J. B., and G. Standing(2003). “A family of decent work index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213~238.
- Binstock, R. H., George, L. K., Cutler, S. J., Hendricks, J., and J. H. Schulz (eds.)(2011).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 Caspi, A.(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 A field study of 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pp.74~80.
- Estes, C. L., Biggs, S., and C. Phillipson(2003).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A Critical Introduction*. Open University Press.
- Ferraro, K. F.(2014). “The time of our lives: Recognizing the contributions of Mannheim, Neugarten, and Riley to the study of aging.” *The Gerontologist* 54 (1) : 127~133.
- Han, S. K., and P. Moen(1999). “Work and family over time : A life course approa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2 (1) : 98~110.
- Lozano, E.(2005). “Quality in Work : Dimensions and Indicators i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Working Paper, UNECE/ILO/Eurostat*

Seminar on the Quality of Work.

Moen, P., and R. M. Orrange(2002). "Careers and lives socialization, structural lag, and gendered ambivalen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7 : 231 ~260.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A Generation at Risk.*

Riley, M. W. E., Kahn, R. L. E., A. E. Foner, and K. A. Mack(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John Wiley & Sons.

Riley, M. W., and J. W. Riley(1994). "Age integration and the liv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34 (1) : 110~115.

_____(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 (3) : 266~270.

〈부표 1〉 연령집단별 고용률(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19.40	54.80	58.70	69.20	73.10	76.50	75.00	69.80	60.80	46.04	55.30
1984	16.60	52.90	58.80	67.30	72.30	74.20	73.20	67.50	58.90	44.44	53.70
1985	15.60	52.80	59.80	68.30	73.20	75.00	74.60	68.20	59.90	45.89	54.30
1986	15.10	54.50	60.00	69.70	73.80	76.00	74.80	69.80	58.90	47.23	54.90
1987	15.90	55.90	62.10	70.30	76.00	76.60	76.30	71.20	61.00	50.20	56.50
1988	13.80	56.60	62.50	71.70	76.00	77.50	77.20	72.90	62.60	51.50	57.00
1989	13.80	58.20	64.30	72.50	76.10	77.60	77.60	74.30	66.40	51.80	58.00
1990	13.20	58.90	64.70	72.60	76.70	77.30	78.40	74.50	68.00	53.40	58.60
1991	13.40	59.10	65.50	72.70	77.50	77.70	77.50	74.40	67.70	52.20	59.10
1992	12.90	58.30	65.40	71.80	76.80	77.90	77.40	75.10	67.50	54.80	59.40
1993	12.10	56.20	64.90	71.40	77.20	78.60	77.10	73.60	67.40	53.50	59.10
1994	11.90	58.00	65.40	72.20	77.30	79.30	77.20	74.40	67.70	56.40	60.10
1995	11.00	59.30	67.00	71.90	77.50	80.50	77.30	74.30	67.80	58.00	60.60
1996	10.30	59.40	67.50	72.60	77.90	80.60	78.10	74.00	67.60	57.90	60.80
1997	9.70	58.30	68.20	73.00	77.70	80.50	77.60	73.90	68.20	58.40	60.90
1998	8.30	50.00	62.90	68.40	73.40	75.30	73.70	69.50	63.00	53.70	56.40
1999	9.00	50.60	62.60	68.30	73.80	74.90	74.20	69.20	62.60	53.30	56.70
2000	10.30	52.00	66.10	69.70	75.30	76.70	76.10	70.20	62.20	53.00	58.50
2001	10.10	52.00	66.70	69.80	75.50	76.60	76.50	70.30	62.50	53.70	59.00
2002	9.40	53.60	67.70	70.20	75.90	77.40	77.40	71.80	63.70	55.00	60.00
2003	8.60	51.80	67.50	70.20	75.20	77.90	75.70	71.30	63.20	51.80	59.30
2004	8.40	52.50	68.50	70.00	75.30	78.50	75.90	71.40	63.40	52.70	59.80
2005	8.00	51.60	68.90	69.60	75.10	78.30	75.90	72.10	63.10	53.40	59.70
2006	6.70	49.20	68.50	70.70	75.60	78.40	77.00	72.60	63.20	54.50	59.70
2007	6.60	48.00	68.40	70.60	74.90	79.00	77.60	73.00	65.20	55.00	59.80
2008	5.90	45.50	68.50	70.70	74.80	78.70	78.10	73.90	65.90	54.10	59.50
2009	5.40	44.60	67.50	69.50	72.90	78.00	77.30	73.70	65.60	53.80	58.60
2010	6.10	44.30	68.20	70.60	73.20	78.00	77.70	74.20	66.50	53.70	58.70
2011	6.80	43.50	69.70	71.00	73.30	78.40	78.40	74.70	67.40	55.10	59.10
2012	7.00	44.50	69.20	72.20	73.20	77.70	79.00	75.40	68.10	56.10	59.40

〈부표 2〉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비율(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34.24	26.16	24.73	26.45	30.79	36.10	41.17	45.47	55.46	70.00	31.44
1984	46.26	34.49	28.38	30.25	32.90	40.31	44.11	45.11	55.32	67.33	36.12
1985	45.55	34.55	29.58	30.75	34.34	39.23	42.55	46.04	56.50	65.58	36.47
1986	69.06	49.01	39.64	37.28	41.20	46.92	47.64	50.26	63.97	72.53	46.15
1987	63.45	47.08	38.46	36.26	41.36	44.27	48.26	53.00	65.05	74.64	45.05
1988	59.31	45.88	36.44	35.59	41.63	42.51	48.50	52.23	63.18	73.22	43.73
1989	59.15	44.94	37.56	37.64	40.79	43.19	48.06	52.55	59.23	74.70	44.04
1990	59.11	45.28	36.98	38.95	42.02	43.42	48.08	52.70	59.60	74.37	44.53
1991	58.60	42.66	35.42	37.68	42.13	43.65	45.87	51.29	58.73	71.09	43.05
1992	56.96	42.80	32.82	34.84	38.24	42.10	43.25	48.75	55.84	70.73	40.99
1993	56.55	41.96	31.15	32.21	38.62	41.17	42.36	45.49	53.89	65.84	39.55
1994	59.63	43.36	32.46	32.66	39.09	42.94	43.05	45.17	53.04	63.29	40.42
1995	57.40	43.92	32.74	32.10	38.35	42.44	42.24	46.86	53.05	63.39	40.30
1996	60.38	45.55	34.27	34.00	40.09	43.34	42.45	47.60	54.16	64.02	41.71
1997	65.34	48.53	36.41	37.23	43.53	44.89	44.28	47.36	54.28	65.66	44.04
1998	70.44	52.75	40.33	37.61	41.58	43.18	45.99	46.54	58.18	66.24	45.03
1999	82.87	59.30	46.15	42.15	45.35	47.14	48.55	50.62	61.72	73.91	49.86
2000	81.20	60.85	45.05	42.69	46.00	48.23	50.58	53.52	63.79	75.79	50.67
2001	79.39	58.13	42.77	41.41	45.19	47.85	50.36	53.97	60.50	75.90	49.34
2002	83.26	59.66	42.41	41.82	45.96	49.79	51.20	54.42	59.97	75.77	50.12
2003	82.51	56.67	40.07	38.04	42.91	47.10	50.75	54.08	62.48	78.23	47.99
2004	82.65	56.63	39.06	36.88	42.42	46.66	50.03	51.57	57.29	75.34	46.90
2005	85.26	56.73	37.66	36.74	41.58	45.44	48.15	50.63	58.08	72.64	45.95
2006	88.97	55.64	37.36	34.42	41.01	45.84	48.37	50.89	56.83	70.30	45.22
2007	87.98	53.65	33.84	33.12	38.18	44.84	47.93	50.17	55.59	69.99	43.61
2008	88.78	55.26	31.64	30.66	36.39	41.89	46.45	47.83	54.18	67.24	41.70
2009	91.38	55.28	32.12	27.50	33.88	39.52	44.04	45.07	52.28	66.20	39.95
2010	85.77	53.71	30.16	25.10	31.18	36.63	40.48	44.08	48.82	60.87	37.60
2011	87.22	52.94	27.72	23.86	27.39	33.45	37.51	43.98	45.55	59.74	35.53
2012	84.84	51.21	26.76	22.05	25.01	30.17	36.29	41.51	44.83	60.59	34.05

〈부표 3〉 연령집단별 전문·관리직 비율(1983~2012년)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0.80	3.99	5.18	6.17	5.63	4.89	4.99	4.66	5.13	3.04	4.82
1984	0.85	3.97	5.52	6.04	5.73	6.32	5.84	5.46	6.35	5.02	5.36
1985	2.32	7.81	8.50	7.87	7.74	7.47	6.88	6.58	6.52	5.47	7.28
1986	2.42	8.48	9.20	8.14	7.20	6.97	7.47	6.88	6.39	5.20	7.47
1987	2.63	8.97	9.24	8.42	7.21	7.24	6.89	6.86	6.59	5.33	7.56
1988	2.39	9.30	9.98	8.25	7.14	7.61	7.19	6.77	6.32	5.66	7.75
1989	3.54	10.47	10.84	8.35	7.08	7.68	7.77	6.40	7.56	5.29	8.14
1990	4.49	11.71	12.38	8.36	6.90	7.62	8.02	6.61	7.08	5.59	8.51
1991	4.01	12.63	13.33	9.01	7.37	7.97	8.39	7.42	6.79	6.95	9.20
1992	4.09	13.25	13.95	10.32	8.83	8.66	9.14	8.24	6.63	6.99	9.98
1993	5.08	16.16	20.78	16.58	14.97	15.07	14.41	12.66	11.60	8.86	15.28
1994	4.53	15.92	20.75	17.99	15.60	14.70	15.55	13.48	11.31	9.14	15.68
1995	3.51	16.13	22.83	19.56	16.36	15.23	15.21	13.83	11.07	10.10	16.44
1996	3.84	15.80	23.70	20.97	17.20	16.08	15.14	14.20	10.76	10.38	17.01
1997	4.49	16.25	25.03	22.03	17.82	16.16	15.38	14.61	11.26	9.88	17.60
1998	3.74	18.58	26.30	22.77	20.09	18.75	15.36	15.95	12.53	10.04	19.01
1999	4.12	17.99	26.57	23.77	21.25	19.68	16.84	15.97	11.89	8.90	19.50
2000	5.51	19.63	26.66	23.00	20.05	18.87	16.19	15.60	10.67	7.95	18.99
2001	7.41	20.17	27.65	24.77	20.35	18.13	16.24	14.70	11.52	9.09	19.39
2002	6.26	21.45	29.35	24.83	20.90	17.32	16.40	14.66	12.13	9.15	19.64
2003	9.73	23.53	29.94	27.79	22.17	19.42	15.87	13.28	12.08	7.82	20.57
2004	9.63	22.38	30.70	29.04	23.17	20.08	16.93	14.18	12.51	8.16	21.19
2005	11.86	21.93	30.19	29.98	24.37	20.76	17.69	14.91	12.86	7.96	21.57
2006	6.84	24.68	31.51	30.99	25.55	21.85	18.33	15.09	12.57	7.95	22.31
2007	5.18	23.68	33.08	31.32	26.97	22.92	18.86	15.66	13.23	8.04	22.88
2008	6.11	24.86	32.86	31.95	27.47	23.60	18.44	15.88	13.31	9.02	23.10
2009	5.66	24.76	32.11	30.93	25.83	21.57	17.81	14.56	12.28	7.95	21.79
2010	6.60	26.42	31.24	31.45	28.16	23.10	18.65	14.08	12.07	8.67	22.30
2011	5.97	26.47	32.08	30.78	28.01	23.35	19.68	13.59	12.08	9.60	22.25
2012	7.66	25.12	32.58	30.11	28.54	23.86	19.75	14.44	12.62	8.60	22.25

〈부표 4〉 연령집단별 중위임금 50% 이하 비율(1983~2012년)

(단위: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33.19	12.77	2.49	2.09	3.29	4.38	5.08	5.59	5.52	5.17	9.04
1984	33.43	12.75	2.94	2.25	3.25	4.83	4.77	5.19	7.20	7.27	9.02
1985	34.95	12.47	2.64	2.39	3.54	4.63	5.82	5.74	6.34	7.18	8.59
1986	33.17	11.97	2.58	2.09	3.20	4.48	5.33	6.44	6.51	6.76	7.73
1987	27.83	9.39	2.18	1.97	2.98	4.21	4.61	5.69	6.43	6.64	6.64
1988	25.75	8.46	2.59	2.58	3.54	4.63	5.22	5.75	7.42	11.89	6.42
1989	28.17	9.41	2.83	2.63	4.05	5.13	5.74	7.79	9.51	12.29	6.67
1990	31.52	9.11	2.54	2.55	4.14	5.27	5.93	7.10	9.05	12.23	6.63
1991	27.63	8.90	2.67	2.78	3.88	4.38	5.02	6.26	8.42	15.58	6.11
1992	26.05	7.18	1.65	1.45	2.44	3.38	4.04	4.88	6.00	10.14	4.55
1993	38.28	15.80	3.66	3.21	5.07	7.22	7.80	9.18	11.20	19.01	8.45
1994	37.17	15.29	3.65	3.13	5.17	6.93	7.34	10.12	12.58	20.14	8.28
1995	35.93	14.04	3.50	2.99	4.77	6.91	8.30	9.54	13.19	18.89	7.93
1996	26.34	11.15	3.19	2.88	4.54	5.89	7.37	8.45	13.64	20.83	6.81
1997	31.08	11.75	3.25	3.05	4.60	7.02	7.53	9.09	14.01	20.26	7.09
1998	33.76	14.61	3.97	3.07	5.00	6.55	8.43	10.51	16.24	23.10	7.67
1999	40.00	15.81	5.24	2.98	4.97	7.45	9.49	10.98	18.05	22.25	8.30
2000	42.28	22.07	6.66	4.27	5.86	8.33	9.88	13.12	21.99	30.92	10.23
2001	34.34	22.73	7.56	4.16	5.31	8.49	9.90	13.63	26.08	40.02	10.51
2002	35.91	21.92	7.31	4.66	6.80	9.65	11.37	14.70	25.68	42.18	11.27
2003	36.01	21.08	7.59	5.22	6.99	9.90	12.09	15.72	24.08	42.33	11.57
2004	34.86	21.19	7.86	5.29	6.78	9.48	11.56	15.20	23.30	42.10	11.44
2005	33.23	22.46	8.78	5.77	7.66	10.62	11.69	15.97	25.82	43.32	12.18
2006	32.52	25.35	11.74	8.12	9.20	11.96	14.45	16.95	28.71	46.48	13.98
2007	39.76	28.07	13.27	8.59	10.86	13.31	15.04	17.82	27.38	46.43	15.07
2008	37.05	19.93	8.12	4.97	6.91	9.43	11.62	14.27	19.47	27.34	10.13
2009	42.09	19.90	7.94	5.21	7.14	9.09	11.34	13.33	18.44	24.72	9.96
2010	57.13	20.69	7.80	5.19	6.78	9.43	11.48	13.90	17.34	25.02	10.13
2011	38.50	17.60	7.31	5.26	7.04	9.52	11.64	13.96	19.41	27.82	10.48
2012	34.58	17.54	7.13	5.33	6.49	8.85	10.99	13.17	17.74	27.90	10.02

〈부표 5〉 연령집단별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 비율(1983~2012년)

(단위: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전체
1983	75.84	65.27	55.73	55.82	56.76	56.66	55.72	50.33	46.42	43.70	60.35
1984	75.01	65.39	56.23	55.45	55.04	56.34	55.44	51.77	48.25	43.31	60.03
1985	69.76	58.10	48.96	47.83	48.40	48.62	46.97	42.86	41.23	28.29	52.31
1986	70.22	58.79	48.85	47.34	48.86	48.69	47.21	42.14	39.23	30.20	51.99
1987	73.11	60.45	49.07	46.70	48.78	47.25	45.80	40.38	34.01	21.09	52.21
1988	66.52	55.98	45.76	43.66	45.03	46.05	45.55	39.80	31.43	27.55	48.67
1989	56.53	48.03	41.08	40.85	42.78	42.77	43.55	40.49	30.81	28.06	43.66
1990	50.16	41.27	35.55	36.81	40.24	42.16	43.54	43.22	37.34	30.11	39.87
1991	41.52	30.93	28.16	29.90	33.21	36.56	39.24	38.79	35.54	27.62	32.67
1992	40.39	32.74	31.67	34.39	36.26	40.40	41.77	42.43	38.65	30.88	35.80
1993	45.68	35.98	37.26	39.19	41.84	44.06	44.42	45.11	42.60	32.89	40.26
1994	42.37	34.33	33.98	35.09	37.43	40.94	42.16	41.79	40.39	32.60	37.13
1995	40.22	33.67	31.40	32.62	36.78	40.04	43.06	43.80	44.07	39.05	36.31
1996	36.93	27.39	25.29	26.86	29.92	32.21	36.89	38.36	39.47	37.48	30.14
1997	36.95	25.87	22.58	23.86	27.49	29.84	34.08	34.92	38.77	40.53	27.92
1998	33.95	23.91	19.75	20.82	23.71	26.38	30.47	31.71	35.54	34.52	24.71
1999	40.82	28.21	25.26	27.13	28.89	31.38	35.34	37.18	36.77	31.85	29.64
2000	36.04	25.55	22.92	24.97	27.37	28.92	33.75	35.37	34.56	34.30	27.64
2001	31.23	23.67	19.58	21.47	24.37	26.63	31.43	34.92	37.58	39.47	25.35
2002	37.99	26.81	21.66	22.50	25.84	29.40	32.20	36.62	38.67	46.92	27.40
2003	34.08	25.33	20.26	22.34	24.87	28.23	31.50	34.76	37.99	42.30	26.47
2004	35.60	29.78	24.44	25.39	28.59	31.34	33.76	36.79	38.86	43.33	29.79
2005	27.71	25.01	21.21	21.19	23.76	27.10	30.02	32.03	34.36	41.61	25.63
2006	28.39	23.92	19.09	20.43	22.13	24.28	26.54	28.50	29.38	35.55	23.24
2007	32.20	22.21	16.52	15.07	17.17	20.20	22.03	24.32	28.13	33.82	19.42
2008	24.36	19.47	15.17	14.85	17.26	19.37	21.61	22.12	24.48	28.51	18.29
2009	21.76	21.21	17.08	16.42	17.32	20.04	22.20	23.25	24.45	29.58	19.40
2010	14.72	18.83	16.76	16.56	17.68	20.52	23.29	23.28	24.45	27.19	19.51
2011	19.85	18.49	15.85	16.13	16.50	18.41	21.08	22.52	22.61	25.81	18.54
2012	20.54	16.38	13.67	13.38	13.27	15.08	17.78	19.73	20.05	21.24	15.69

Quality of Work : Exploring Age Stratification and Structural Lag from 1983 through 2012

Hong Joon Yoo · Ki Hun Kim · Byeongdon Oh

Exploring the changes in occupational qualities of different age groups for the recent three decades, this study estimates the process of age stratification in South Korea. First, the occupational qualities of the ten age groups between fifteen and sixty-five year olds are evaluated by five variables: Employment-population ratio, temporary employment ratio,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employment ratio, ratio of employment underpaid by 50% of the median wage, and ratio of employment over-working more than 50 hours a week. Furthermore, through a novel statistical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scaling, we follow the temporal variation in occupational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the different age groups from 1983 to 2012.

According to the analysis, we discover the continuous tendency that the quality of work of the youth and the elderly have been aggravated over time. The occupational stability for the former has decreased, and the income discrimination against the latter has increased. Consequently, the occupational conditions of the youth and the elderly have become more homogeneous but the occupational conditions of the two age groups and the other age groups have become more heterogeneo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occupational structure has been shifting from the age integrated structure to age differentiated structure in a relative sense. Furthermore, it is implied that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e structural lag between age structure and occupational structure could emerge in the Korean society.

Keywords : quality of work, decent work, age stratification, structural lag, multi-dimensional scaling